



2023년 책꾸러미 후보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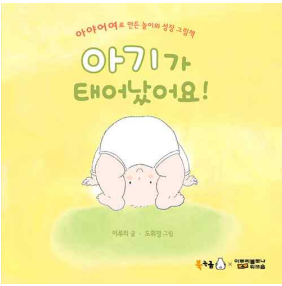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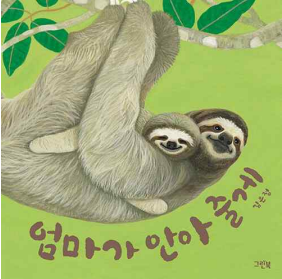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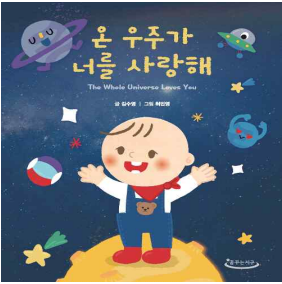
>> 1단계 도리도리(1세 대상)

연번	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년도	비고
1	꼭꼭 숨어라	박미영	포링고	2022	 <p>숨바꼭질에서 술래가 된 여우가 동물 친구들을 찾아 나섰다. 여우는 숲속 곳곳에 숨은 친구들을 모두 찾을 수 있을까? 아이와 함께 동물의 일부분을 보고 '누구일까?' 추리하며 여우의 친구들을 찾아보자. 각 동물의 특징을 담은 의성어와 의태어를 통해 아이는 말의 재미를 느끼면서 동시에 부분을 보고 전체를 추리하는 인지 능력을 자연스럽게 키울 수 있다.</p>
2	내일이 뭐하니?	김지연	키다리	2020	 <p>'자연 속에서 신나게 뛰어놀며 자라면 남에게 베푸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작가의 발견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1월부터 12월까지 자연 속에서 할 수 있는 놀이들이 담겨 있어 자연스럽게 계절의 흐름을 느낄 수 있다. 모든 장면을 판화로 작업했으며 매끄럽지 않는 선과 면에서 작가의 개성이 느껴진다.</p>
3	누구나 연주회	박현종	종이종	2021	 <p>고슴도치의 작은 두드림으로 시작된 경쾌한 숲속 연주회를 그린 작품이다. 고슴도치가 나뭇가지로 그루터기를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도토리 모자를 손에 쥔 다람쥐가 찾아오고, 또 그 소리를 듣고 포도나무 이파리를 입에 문 기린이 찾아오며 연주회는 점점 커진다. 무엇으로든 연주해도 되고, 누구든 함께해도 되는 '누구나 연주회'가 열린 것이다.</p>
4	눈 코 입	백주희	보림	2017	 <p>코코코코 놀이를 꼬리 잇기 형식으로 살짝 변형해 놀이를 더욱 풍성하게 확장했다. 아기들이 좋아하는 동물들을 차례로 등장시켜 흥미를 더하고, 서로 다른 생김새를 비교하며 차이를 이해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시작이나 끝이 딱히 없는 원래 놀이와는 달리 아주 사랑스럽고 재치 있는 '끝'도 갖추었다.</p>
5	대단해!	신혜원	딸기책방	2022	 <p>적절한 칭찬을 받으며 자라는 아이는 자신을 긍정하는 힘을 얻게 되고, 자존감과 행복감을 충족하며 성장하면서 어떤 도전이든 즐겁게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된다. <대단해!>는 칭찬받고 칭찬하는 즐거움을 아기들과 나누기 위해 출간되었다. 책장을 넘기는 아기 독자는 멋진 동물 친구들을 만나게 된다. 누구에게나 대단한 구석이 있다. 우리 아기도 말할 수 없이 멋지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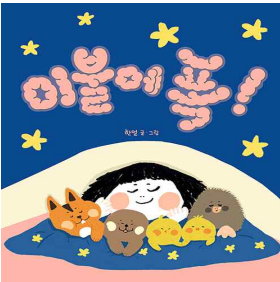

>> 1단계 도리도리(1세 대상)

	딩동! 누구지?	조영지	그린북	2021	
6	<p>《딩동! 누구지?》를 펼친 아기 독자들은 가장 익숙하면서도 편안한 가족들의 얼굴을 마주한다. 주로 집 안에서 생활하며 가족들이 한 명씩 귀가할 때마다 다정한 인사를 나누는 것은 강아지뿐이 아닐 것이다. 이 책은 발소리와 문 소리에 누가 오는지 궁금해하고, 가장 먼저 뛰어나가 반가움을 표현하는 아기의 마음을 강아지를 통해 표현하고 있다.</p>				
7	무엇이 보이니?	이주희	한림	2018	
8	반짝	최정선	보림	2021	
9	밤톨이	문종훈	한림출판사	2020	
10	빼꼼, 까꿍!	살구나무씨	여우고개	2018	

>> 1단계 도리도리(1세 대상)

11	아기가 태어났어요	이루리	북극곰	2022	
12	엄마가 안아 줄게	김은정	그린북	2022	
13	엉덩이 친구랑 응가 풍!	정호선	푸른숲주니어	2017	
14	예뻐	신혜원	딸기책방	2021	
15	온 우주가 너를 사랑해	김수영	꿈꾸는 지구	2019	

>> 1단계 도리도리(1세 대상)

	웃어요	채상우	키다리	2021	
16	<p>아기와 함께 있으면 아기의 몸짓 하나, 표정 하나에 집중하게 된다. 아기가 얼굴을 찌푸리면 엄마도 얼굴을 찌푸리고, 아기가 하품을 하면 엄마도 하품을 하는 등 아기의 행동들에 영향을 받는다. 그렇다면 아기가 울 때는 어떨까? 다양한 아기 동물들의 생생한 표정을 통해 아기에게 흥미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엄마로 대변되는 양육자의 마음까지 보듬는 아기 그림책이다. 책을 함께 본 다음 아기를 꼭 안아 주며 “네가 웃으면 모두 같이 웃는다.”는 다정한 말을 전할 수 있다.</p>				
	이불에 폭!	한얼	책읽는곰	2022	
17	<p>저마다 좋아하는 놀이에 빠져 있던 아기 동물들은 잘 시간이 되자, 각양각색 이불을 덮고 잠이 든다. 다람쥐는 바스락바스락 낙엽 이불을, 병아리는 파삭파삭 짚 이불을, 두더지는 포슬포슬 흙 이불을 덮는다. 사랑스러운 아이도 좋아하는 인형들과 한창 재미나게 놀고 있다. “우리 사랑둥이, 이제 잘 시간이야!” 엄마의 말에 아이는 데굴 데굴 굴러 세상에서 가장 포근한 잠자리로 쏙 들어간다. 아이에게 안정감을 느끼게 해 주는 동시에 좋은 잠자리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림책이다.</p>				
	쭉쭉쭉	강정연	책읽는곰	2019	
18	<p>0~3세 무렵 아이들은 온몸의 감각을 통해 세상을 배운다. 아이와 함께 그림책을 보는 시간도 마찬가지이다. 눈으로는 그림을 보고, 손으로 책장을 만지고, 입으로 빨아 보기도 하고, 코로 냄새도 맡고, 엄마 아빠가 사랑을 듬뿍 담아 읽어 주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따라서 이 시기의 아이와 그림책을 볼 때에는 온몸으로 그림책을 보고 즐기도록 돕는 것이 효과적이다. <쭉쭉쭉>은 부모와 아기가 함께 책을 읽으며 자연스럽게 애착 놀이를 하도록 도와준다.</p>				
	후후후	서지연	천개의바람	2020	
19	<p>아이가 입술을 동그랗게 모아 ‘후후후’ 입김을 분다. 그러면 동동동 떠오른 비눗방울이 멀리멀리 날아간다. 이번에는 종이배를 물에 띄우며 ‘후후후’ 입김을 분다. 종이배는 아이의 바람을 타고 동실동실 떠간다. ‘후후후’ 입을 모아 바람을 불면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후후후’ 입김을 불어보는 행동을 통해 여러 가지 상황을 놀이하듯 즐길 수 있는 0~3세 그림책이다.</p>				